5월 둘째주 일 낮 예배 대표기도문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롭게 맞는 한 주, 주님의 은혜의 품 안에서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기도로 믿음을 새롭게 하는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온 세상이 푸르고 생명으로 가득한 이 계절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계절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며 열매 맺게 하시는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뜻을 저버린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지 않고, 때로는 우리의 욕심과 고집으로 형제를 판단하고,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고백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각자의 삶에 지친 마음이 위로를 얻고, 병든 몸과 아픈 마음이 치유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기도로

중보하며,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며, 주님의 뜻 안에서 성숙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교단 위에도 주님의 평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며 주님만을 높이며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5월 둘째 주 이 시기,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부모,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가정을 통해 믿음이 전수되고, 사랑이 나누어지며,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부모님께 주님의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시고, 오랫동안 강건하게 지켜 주셔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와 사랑으로 헌신해 오신 부모님의 사랑이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시며, 어떤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신명기 6:5)는 말씀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특별히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병상에 있는 환우들과 육체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허락하셔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홀로 외롭게 지내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따스한 위로와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삶의 무게와 고단함으로 지친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는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고,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으로 괴로워하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평안으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립보서 4:6-7)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갈등과 분열을 넘어 화해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이끄는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정직함을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진심으로 섬기게 하시고, 사회 곳곳에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서로를 위로하고 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거센 물결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 쓰임 받는 세대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는 젊은이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회학교와 청년부, 대학부 위에 주님의 기쁨 부으심이 충만하여 믿음의 전통이 이어지고 복음의 빛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준비된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을 울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 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도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높이며, 주님께만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모든 말씀 드리울 때 마음깊히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